

강진 e커머스 직영... 매출·일자리 다 잡았다

군, 올해 6억 예산 절감·매출 전년보다 2800% 증가

소상공인 판로 개척·창업 등 농촌 디지털 전환 선도

강진군이 e커머스 직영 운영 등 디지털 전환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도출하며 지방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한 지방재정 관련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자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군이 직접 운영하는 'e커머스 직영 모델'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예산 효율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

에 달성했다.

이번 사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킨 대표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군은 2024년 1월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신설하고, e커머스 운영을 전담할 플랫폼육성팀을 구성했다. 이어 지역 대표 유통브랜드인 '초록민음 소평물'을 전면 리뉴얼하고, 기존의 소극적 운영 방식을 벗어나 군이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관리하는 직영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조직 운영비·판매수수료·홍보운영비 등 중간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군은 온라인 입점이 어려운 고령 생산자들을 위해 상세페이지 제작, 수수료 안내, 온라인몰 입점 절차 등을 전담 인력이 직접 지원하며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옥션·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에 '강진 브랜드 홍보관'을 개설하고, 기업 전용 자사몰·폐쇄몰 입점 제안, 대도시 팝업스토어 운영, SNS 홍보 채널 구축 등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판로개척 전략을 전개했다.

이러한 행정역량 결집은 사업비 절감과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성과로 이어졌다.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6억원 규모에 이르렀고, e커머스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매출도 강진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800% 증가, 2024년 대비 1.5배가 증가했다. 쇼핑몰 회원 수도 950명에서 2만410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성과도 이어져 e커머스 교육을 운영해 총 24명의 교육생이 온라인 창업에 성공했다.

강진원 군수는 "지역의 특성과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군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직접 지원한 것이 성과의 핵심이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판로 확장과 브랜드 고도화, 데이터 기반 판매전략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52@

진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내달까지 행정적 조치 활용 등

진도군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진도군은 체납액 정리 기간에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 재산 조회와 필요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금금지 요청 등 행정적 조치를 활용해 체납액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며, 필요시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변호관을 영치할 예정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재원이다"며 "군민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가 필요. 진도군도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영암, 찾아가는 희망버스 제공
청년 진로 탐색·문화체험 기회

영암군은 최근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찾아가는 희망버스' 프로그램으로 지역 산업단지 우수기업인 HD현대삼호와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을 견학 기회를 제공했다.

맞춤형 현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구직 단념 등 청년의 진로 탐색과 지역 산업·문화 체험 기회 확대, 지역 정착 의지와 도전 정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 청년들은 HD현대삼호중공업 방문해 조선 산업 현장의 생산공정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견학하고, 회사 직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산업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영암하정응미술관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와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 프로그램 참가자는 "기업탐방으로 조선업의 규모와 일터 환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에도 다양한 일자리 등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무안, 공항 일원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용객 시인성 확보... 지역상권·도시이미지 제고

무안군이 공항 관문지구 일원에 특색을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지역상권과 도시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관문지구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해 조화롭게 디자인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공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특색과 도시경관을 밝고 세련되게 개선했다.

군은 망운면 소재지 내 주민협의회와 지역다자인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후화된 간판과 벽면 정비사업을 건물 5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이들 건물은 기존의 단순한 표준형 건물번호판을 벗어나 공항의 건물 외벽 색상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했다.



특히 LED 조명 방식의 입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도입하면서 야간에도 뛰어난 시인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앞서 군은 2021년부터 무안을 낙지특화거리와 공동주택, 지역 내 대표 관광지인 회산백련지, 무안황토갯벌랜드 등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신안군이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를 실시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신안군, 의료 취약지역 낙도에 희망 신다

흑산면 4개소 등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버스 운영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신안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를 실시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금융산업 공익재단과 신안군복지재단이 함께 하는 '도서 낙도 의료취약지 치과 이동 진료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과 이동 진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첫 진료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515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특히 접근성이 취약한 흑산면 4개소와 신의, 하의, 장산 등 4개소 경로당을 잇달아 방문하며 맞춤형 치과 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주요 진료 내용은 구강검진, 치석 제거, 불소도포, 의치 세정 교육 등 주민들의 구강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서비스였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흑산면 진료

1구에 거주하는 80대 김모씨는 "힘들게 배 타고 물으로 나가지 않고 치과 버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다"며 감사를 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 장비 확충, 고령층 집중 관리 프로그램 도입, 도서 지역 맞춤형 방문 주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치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의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은 섬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해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실시

해남군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해 12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초기의 불안정한 소득 여건을 개선해 자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영농 예정인 청년으로, 대상자는 서면 평가

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영농 경력에 따라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